

2금융·P2P도 고객정보 털렸다… 금융권 보안체계 ‘도마위’

예가람저축, 4만명 고객정보 유출
웰컴저축, 법인명·이름 등 2200건
AI활용 동일범 소행 가능성 제기
정보보호체계 인증 ‘속수무책’ 지적
금융위 “국민들 피해 없도록 최선”

시중은행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유사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으로 해킹 피해가 번지면서 금융권이 공시해 온 정보보호 체계 실효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신용접수에 연 소득까지 털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티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 2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재까지 2금융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예가람저축은행이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약 4만 명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까지 법인고객 정보 2200건이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법인명, 법인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정보가 탈취됐다. 이름, 전화번호에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됐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험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P2P업계에서도 해킹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PFCT에서는 고객 302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모우다도 최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특히, 모우다는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에 더해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조회된 KCB 신용접수,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연 소득, 당사 내부 가산사 신용등급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안내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 추석 연휴 동시다발적 해킹

이번 금융권 집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추석 연휴 시점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자사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 접근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PFCT는 지난달 27일 오전, 모우다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부터 28일 오전 2시경 사이에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는 시중은행 공격에 쓰인 IP와 다르나 해킹 수법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탈취 공격이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등에서도 유사한 접근 시도가 있었으며, 보험사와 증권사에서도 외부 해커의 시스템 접근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고객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정보보호 체계 실효성 의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투자액을 늘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237억1350만원 가운데 15.8%인 37억 5182만원을 정보보호 부문에 투입했다. 직전연도 15%에서 0.8%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축소됐다. 정보기술부문 인력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3%에서 지난해 7.6%로 0.7%p 줄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저축은행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회사기도 하다. ISMS 인증은 금융보안원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대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추가로 갱신했다고 공지하고 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갱신해 왔다는 설명이다.

P2P업체들도 자체 점검 결과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왔다. PFCT는 지난해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서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8개 영역, 13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91.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우다도 지난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받은 결과 97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해 대응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보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보안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채신 기자
wtjts4187@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AI홈’ 영토 확장… 애플·中 가세

‘스마트홈’ 시장 춘추전국시대

관련 세계시장 규모 2070억 달러
7년간 연 평균 성장률 23% 예상
삼성 ‘스마트싱스’ 4.6억명 사용
LG,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 공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집 안 가전과 기기를 연결하는 ‘AI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스마트싱스와 씽큐를 앞세워 생태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로봇청소기에서 확보한 입지를 발판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애플도 AI 비서와 기존 기기 생태계를 앞세운 홈허브 출시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AI홈 주도권 경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AI홈 경쟁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이 올해 2070억달러에서 2033년 8874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23.1%다. 국내 시장도 올해 68억7970만달러에서 2033년 194억534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8.5%다.

AI홈은 스마트홈에 AI를 접목해 연결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다. 가전을 단순히 원격 제어하는 수준에서 여러 기기와 서비스를 연동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모델이 AI홈 플랫폼 ‘씽큐’, AI홈 허브 ‘씽큐온’, 실행형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를 활용한 AI홈 솔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국내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싱스와 씽큐를 중심으로 글로벌 AI홈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글로벌 등록 사용자는 지난 5월 기준 4억 60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등록 기기 수가 2000만대를 넘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TV, 에어컨 등 자체 제품뿐 아니라 타사 기기와의 연동을 확대하며 연결 범위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씽큐와 AI홈 허브 ‘씽큐온’을 앞세워 가전에서 주거 공간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IF A 2026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는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씽큐온을 포스코에너지 ‘더샵’에 누적 1만세 이상 공급했다. LG전자가 인수한 옛 홈의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를 통해 삼성

전자 등 타사 제품과의 연결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확보한 입지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와 주방가전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국내외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로보락은 올해 2분기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23.7%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출하량 1위에 올랐다. 로보락·드림미·에코백스·샤오미·모바 등 중국계 상위 5개 업체는 글로벌 로봇청소기 출하량의 75%, 판매액의 82%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달 로봇청소기와 함께 ‘미지아 스마트 공기청정기 엘리트’를 선보였고, 드림미도 로봇청소기에서 물걸레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주방가전 등으로 판매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도 오는 13일 약 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홈 허브와 신형 홈팟 미니, 애플TV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홈허브에는 AI 비서 ‘시리 AI’가 적용돼 얼굴과 음성으로 가족 구성원을 구분하고 일정과 메시지 등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조명과 도어록 등 집 안 기기 제어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존 기기에서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스마트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애플의 강점으로 꼽힌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첨단기술 유출 2명 중 1명 ‘숨방망이 처벌’

5년여 간 총 120건 해외 유출 집계
형 선고 162명 중 77명 징유·재산형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2025년 19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3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3건의 유출 사건 중 5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이 70건으로 전체의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40건,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62명) 및 재산형(15명)을 받은 인원이 총 77명으로 전체의 47.5%에 달했다. 피고인 2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면한 셈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당국,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체계 개편 예고

》1면 “해커 표적” 은행…’서 계속

이번 연쇄 해킹은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 접근해 2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처음 파악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를 전 금융권에 긴급 공유했고, 각 금융회사가 자체 접속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인가 접근

이 확인됐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명, 웰컴저축은행 2200건, 현대캐피탈 146명 등 제2금융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이들 7개 금융회사에서는 동일 공격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IP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며,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커들은 보안 수준이 높은 핵심 전산망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 금융회사의 ‘약한 고리’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